

한국 · 일본건축의 공간구성 비교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Korean Architecture and Japanese Architecture

김 동 영*
Kim Dong Young

Abstract

Architectural space consists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The layout and form of architectural space has a great variety of characters by region and cultur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which has a priority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in developing the layout and the form of architectural space. Belonging to the culture area of Chinese characters with Korea, Japan has maintained its own identity. It has an identity in the layout and form of architectural space as well. Therefore, th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theor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priority given to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extending to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also the backgrounds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theories of two countrie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each country has different characters in how to introduce nature, how to expand space and how to compose windows, including the view of nature and the cult of space. As a result, the space in Korean architecture has relatively the exterior-oriented character but in Japan architecture spatial character is interior-oriented. The interior-oriented character can be relevant to the word 'reduction' and the exterior-oriented character to 'extension' after all. Also it can be thought that each character has a great relation with climate and idea of people in power.

keywords: Korean Architecture, Japanese Architecture, interior-oriented, exterior-oriented

*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I. 서론

건축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방법과 형태는 지역과 문화에 따라 특성을 달리한다 할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하여 전개하는 특성이 있는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 한자문화를 공유하면서도 그들만의 독자성을 이룩하여 왔다. 또한 건축공간의 구성방법과 형태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내부와 외부공간구성방법 및 형태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과의 차이점의 한 단면을 밝히려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양국전통건축을 중심으로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의 건축과 그와 관련된 여러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그것의 배경에 관해 논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자연관

이여령은 한국인은 「스스로 있는」 상태의 자연을 사랑하는 반면 일본인은 사람을 위한 자연-인위적인 자연으로 만들 때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연관은 자연을 향해 나아가는 확대지향성을 지니고 있고, 일본은 그와는 달리 자연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축소지향적이라 하였다.¹⁾

2. 자연도입방식

우리의 방식을 극명하게 나타내어주는 것 중에 독락당의 계정과 소쇄원을 들 수 있다. 자연이 있는 곳에 그 옆에 다가가 슬며시



그림 1 독락당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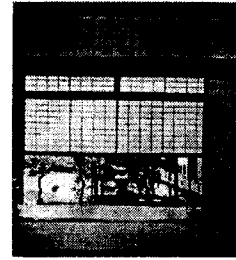


그림 2 大德寺
孤蓬庵忘筓(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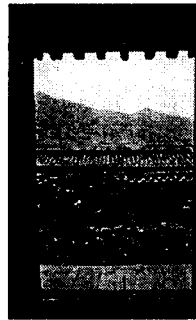


그림 3 괴산
김기응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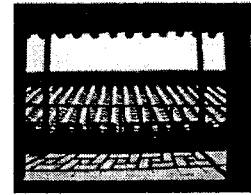


그림 4 경북 양동마을
향단



그림 5 城戸崎씨댁, 안도타다오, 1986
침실에서 중정이 보이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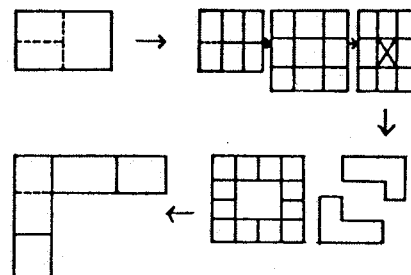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공간확장 변천
(김광현, 韓國の住宅, 丸善, 1991, p.76)

1) 이여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기린원, 1986, p.144

발을 담근 또는 기대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할 수 있다. (그림 1) 반면 일본은 축경 또는 차경의 방식으로 자연을 축소하는데, 이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 그 본질이 변화됨을 의미한다.²⁾ (그림 2)

3. 창 의 구성

우리건축의 창에서 형성되는 시선은 가까이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향단의 안채의 마루공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있다.(그림 3)이에 반해 일본의 창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데로 차경과 축경을 이용하게되면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다. (그림 4, 5)

4. 공간확장방식

한국은 채나눔이라는 방식으로 내부(건물)와 외부(마당)의 구성으로 확장해 갔으며, 공간을 확장해 가는 패턴에서 닫혀진 내부공간의 중심에서 외부공간으로 열리는 방식을 볼 수 있다.(그림 6)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하양양식과 유사한 고야네(小屋根)양식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서로 섞인 공간을 내부공간화 해간다.(그림 7, 8) 그리고 마당도 마굿간도 안방을 덮고 있는 같은 지붕아래 구성되기도 하였다.(그림 9) 加藤은 일본은 건물전체의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세분하여 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방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방을 다 만들고 나니까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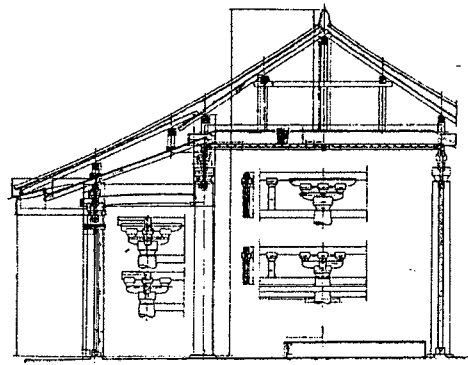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의 小屋根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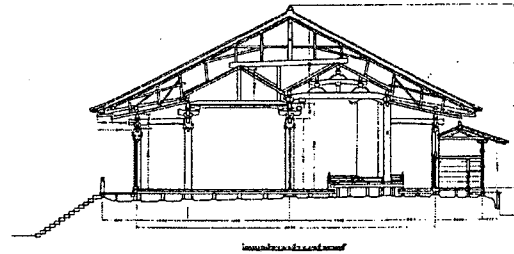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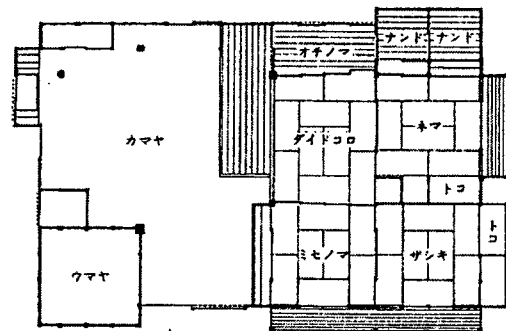


그림 8 일본의 공간확장 방식



외관

내부



평면도

그림 9 일본 민가의 예(近畿, 笹岡家 주택)

2) Ibid: p.117

던 전체의 모양이 되었다고 하며, 그것이 결국 증축의 정신이라 하였다.³⁾

5. 공간예찬론

일본에서 그들의 공간에 대한 특색을 잘 표현한 것으로, 미국 콜럼비아대학 건축학 대학원에서 일본건축에 관한 교재로 사용된 음예예찬(陰翳禮讚)이 있다. 이 책에서 타니자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 생활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부득이 하게 어두운 방에 살게 된 우리의 선조는 어느덧 그늘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미의 목적에 따랐듯이 그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는 다다미방의 미는 음예 즉, 그림자, 또는 어둠의 濃淡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술회하였다.⁴⁾ 일본건축을 「바깥」 보다는 「안」에 더욱 특색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공간에 대한 예찬은 주로 「안」에서 「바깥」의 경관을 음미한 표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지향적이고, 일본의 공간은 외부보다는 내부지향성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한다. 이어령은, 일본인이 우찌(內)에서 소또(外)의 공간으로, 즉 「축소」에서 「확대」의 공간에 놓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짐작이 가지 않

는다」 그리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의 묘한 심리상태가 된다⁵⁾ 고 하였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에게서는 내부공간 지향적인 성향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결국 「안(우찌)으로의 지향」은 「축소」와 「바깥(소또)으로의 지향」은 「확대」라는 단어와 관련성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기후와 집권층의 사상에 많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기후에 있어, 일본은 한국에 비해 비와 바람이 많아 처마를 길게 해야하여 실내에서 지내는 기간이 비교적 많이 되었던 점, 둘째로 집권층에 있어 한국은 문인층이, 일본은 무인층이 득세하였는데, 에도(江戸)幕府에서는 최하급의 무사에 대해서도 무례한 언동을 한 때에는 베어 죽여도 무방하였고⁶⁾, 무사사회는 엄한 계급사회에 모든 사람을 강압적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행하여졌고, 자기일에 만족하여 천하제일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⁷⁾는 개개인의 안위를 위해 더욱 실내의 생활로 향하게 하는 배경요인중의 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금후 한국과 일본의 공간구성방식 특성에 대하여,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1. 本多友常: ゆらぐ住まいの原形, 學藝出版社, 1986(일본)
2. 安藤忠雄 저, 김동영 역: 「주거에 대한 사고, 도서출판 국제, 2000

5)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기린원, 1986, p.318

6) 김운용: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1985, p. 91

7) Ibid: p.60-61

3) 加藤周一 저, 김진만 역: 일본문화의 숨어 있는 형, 도서출판 소화, 1995, p. 29

4) 谷崎潤一郎 저, 김지견 옮김: 음예공간예찬, 발언, 1989, p.49